

[오피니언]

光日春秋

문국현



「현대 사회에서 경영자의 책임은 기업 그 자체와 경영자의 공적 지위, 경영자의 성공과 사회적 위상을 위해서 중요하다. ... 그러므로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은 경영자의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경영자가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경영자에게 중요한 것은 교육도 기능도 아닐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는 한층 더 성실성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이자 경영학의 대가였던 피터드러커가 그의 명저 「경영의 실제」에서 간파한 말이다.

그러나, 기업인에 의한 부정 부패 등 비윤리적 범죄행위는 미국에서도 능직으로 자속되어, 해외 부패방지법·기업윤리 행동원칙·부정청구법·내부 비리 고발자 보호법 등이 제정되어야만 했고, 2001년에는 모든 상장기업에게 윤리 경영을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미국 10대 기업의 하나였으며,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이었던 엔론에서 2001년 회계부정 사건이 탄로나고, 2002년에는 미국 내 시가 총액 1위로서 세계적

통신회사였던 월드컴에서 마자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들로 엔론과 월드컴은 파산되어 주인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회계법인이었던 세계 3대 회계법인이 아더앤더슨은 공중체체 되어 버렸고, 관련 금융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이었던 씨티그룹은 회계부정에 연루된 혐의로 수조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월드컴의 최고 경영진에겐 징역 25년이 선고되었고, 엔론의 책임자에겐 무려 160년의 징역이 구형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던 기업들의 불법과 비리에 놀란 미국인들은 미의회를 통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업 부패방지법을 2002년 제정·실시하게 되었으며, 기업 경영진이 기업회계 장부의 정확성을 보증케하고, 잘못이 있으면 CEO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2004년에는 조직의 범죄에 대한 연방 판결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윤리적 기업

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4배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윤리 경영 책임과 기업 회계장부의 성실성에 대한 인증 책임은 2001년 이후 대기업과 상장기업들 모두에서 책택 실시되었다.

특히 지난 90년대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 관련 부정축재 환수과정과 IMP의 환위기 수습과정에서 공적 자금 160조원을 투입하여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고,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워크아웃을 도울 때,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윤리경영과 회계장부의 성실 작성에 대한 서약을 받았다.

더구나 2002년 대선과정에서 차기

등도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으로까지 확대되어 온 것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

참으로 허망스럽고 애석한 일이다.

공적자금 160조원을 투입하고, 전국민이 금모으기를 하며 사기를 둘아주고, 나인 찍혀가면서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요를 창출해주고, 매년 수조원 이상의 환평형기금 운영과 관련해 국가가 부담하면서까지 수출이 잘되도록 도와준 대기업들이 이토록 기대를 저버린 것에 국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문득 2001년 GE의 미국 본사를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GE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이 되기까지에는, 웨일치 회장의 취임 초기 3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였던 윤리혁신 운동의 성공과 그 이후 17년간 일관되게 추진하였던 식스시그마 운동과 변화가속화 운동의 성공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일방적 면죄부에 불과한 서약이나 협약을 넘발하여 사태를 악화시켜온 관행과 문화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

법의 권위를 살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기업인들만을 지원하여 공정한 사회·신뢰 사회·기업인들이 진정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우리도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한다.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박병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이라고 한다. 그래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를 위해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고 그날에는 카네이션이나 선물 등을 준비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시한다고 한다.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한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예전의 우리 어머니들은 이러한

웃을 한번 사면 소매가 다 헤어질 때 까지 입으셨으며, 택시는 고사하더라도

얻고 있다.

손자 손녀 코 눈물 닦아내기에 날마다 마를 날이 없던 할머니의 흰 푸새 치맛 자락이 있다.

총총시하에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항상 바쁘게 펼렁 바람 일구던 어머니의 치맛 자락이 있었다.

이런 정다운 할머니와 어머니의 치맛 자락은 아닐지도 현대의 어머니들은 나름대로의 마음의 치맛 자락을 간직하고 있다.

학교 처음 입학하면 날! 입학하는 아 이보다 더 설레이 하는 어머니 마음의 치맛자락!

아이가 소풍가는 날! 자신이 소풍 가는 날 새벽부터 정성들여 도시락을 준

기 고

고호석



사회 곳곳이 불법과 무질서로 혼돈스럽다. 불법폭력시위만이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가 우리사회에 팽배해있으나 이를 질타할 지성의 소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폭력이 정당화되는 나라는 없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영웅시하는 이상한 풍토로 인해 공권력이 위축되어 그 결과는 치안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고, 결국은 기업의 대외인 인도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법은 우리모두의 약속이다.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지도층 인사들부터 솔선수범

여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불법이 자취를 감추고 치안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민족은 어려울 때 난관을 더 잘 극복하는 지혜를 가진 민족이다. IMF 같은 위기상황도 짧은 기간에 극복하여 민족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자랑스런 모습은 사라지고 집단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고, 결국은 기업의 대외인도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법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모두의 약속이다. 법이 불법아래서 집행이 된다면 내 형제자매도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보자.

법과의 약속

하고 공권력에 대한 항의 방문등으로 문제의 본질을 헤기보다는 이들의 문제를 진정무엇인가 핵심부터 짚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은 경찰이다. 지난 2002년도 부평 대우자동차와 광주대우캐리어 노사분규, 광주하남공단 화물연대 집회, 순천 현대 하이스코 사태에 대처한 경찰에게 남은 것은 짧은 전·의경들의 상처, 일선 지휘관들의 비애뿐이다.

법은 국민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경찰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

여 이제 더 이상 공권력의 위축으로 사회전체의 기본뿌리가 훼손되면서 안된다. 자기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불법폭력시위는 안되며 이들의 주장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평가하여 법에 의한 심판을 받도록 유도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오늘날 경찰은 분명히 많이 달라졌다.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통하여 선량한 국민의 편에 서서 법을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통해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진정한 파수꾼이 될 것이다.

〈유도회 광주시 본부 운영위원〉

치맛자락의 추억

돈 몇백 원을 아끼려고 만원버스에 실컷 고생을 하시면서도 자식들의 궁색함은 젊어 하셨다. 맛있는 것은 자식들에게 내어 놓으며 '난 배부르다'라 하시며 살짝 밀어 주셨던 분이시다.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산과 같은 존재였다. 늘 감싸주고 끗듯이 버텨주는 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받아주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로 꽉 찬 산.

그러나 현대의 어머니들은 산과 같은 존재의 어머니보다는 공기와 같이 늘 함께 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모든 어머니들은 아니지만 가끔 지나치게 자녀 교육에 열정이 많은 어머니들을 보곤 한다. 도가 지나친 어머니들의 교육 참여로 인하여 치맛바람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예전의 우리 생활 속에서는 치맛바람이 아닌 정답고 그리운 치맛자락의 추억

비 하는 어머니 마음의 치맛자락! 운동회 하던 날! 조금 뒤쳐져 달려오는 아이와 마음이 급한 나머지 골인 지점까지 함께 뛰어 주던 어머니 마음의 치맛자락!

친구와 싸우고 울고 들어오는 아이를 아무 말 없이 꼭 안아 주며 엄마는 언제나 아이의 편임을 생각하게 해주는 어머니 마음의 치맛자락!

예전의 어머니들이 산처럼 언제나 감싸주고 무슨 일이든 받아 주는 어머니였다. 현대의 어머니는 친구처럼 눈높이를 맞추며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며 힘이 되어서 자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함께 하는 어머니가 된 것이다.

예전 치맛자락의 따스함이 교육현장을 마음대로 훔들어 대는 차가운 치맛바람이 되지 않기를 마음으로 빌어 본다. 〈광주 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젊은이들 소비지향적 태도 반성해야

가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는 하루에도 전당포를 찾는 사람들이 수십명이고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지금 경제적으로 불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조사 결과를 접했는데 젊은이들의 소비지향적 태도에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기본적인 에티켓은 여전히 모르는 사람 많다.

지난 주말에 친구와 대학 캠퍼스로 산책을 나갔는데 큰 개가 벤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꼬마를 본 뒤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꼬마가 놀라 물을 터뜨렸다.

부모가 옆에서 저지했지만 주위 사람들도 모두 놀랐다. 개 주인도 부모에게 사과하며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 설

한미 FTA 공청회 다시 무산돼선 안된다

정부가 내달 5일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격 협상개시 이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청회를 다시 개최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지난 2월 2일 개최하려던 한미 FTA 공청회는 관련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공청회 절차를 생략한 협약은 무효라는 주장도 거셌다. 이번에는 활발한 찬·반 토론으로 한미 FTA의 등식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전히 진보주의자들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51번째 주로 전락할 것이라는 등의 극단적 주장과 함께 이념 논쟁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별다른 부조차원 없이 수출덕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FTA를 거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과정효과를 불고 올 미국과의

회통장'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 이르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넘쳐흐를 지경인 사회 각 부문이 아직도 폭력시위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국가나 국민이 용납해선 안된다. 우리는 공권력이 이 지경이 된 건 참여정부의 '코드'로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폭력시위 전사들이 386 엘리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폭력시위에 관대히 취급받는다면 참여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도 없다.

경찰병원 병상에 누워있는 시위 부상·전·의경의 숫자는 2002년 25명이던 것이 2003년 681명, 2004년 586명, 2005년 747명으로 늘고 있다. 오늘 벌어질지도 모를 평택 미군기지 설치 반대 대규모 시위에서도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충돌을 회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폭력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

부당한 권리가 자배하던 시절, 공권력에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길 바란다.

無等鼓

어느 날 한 여인이 어린 소년과 함께 마하트마 간디를 찾았습니다. "얘가 사랑을 너무 좋아해 이가 모두 죽었습니다. 선생님이 사랑을 먹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간디는 "오늘은 그냥 가시고 한 달 뒤에 오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 뒤에 찾아온 모자에게 간디는 또 다시 "한 달 뒤에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달이 흐르고 찾아온 모자는 간디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사랑을 먹지 마라. 사랑을 먹으니 이가 모조리 죽지 않느냐?"

그러자 그 아이는 "네, 이제부터 사랑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두 달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간디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랑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가 사랑을 좋아하면서 아이에게 사랑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도 사랑을 먹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CEO의 리더십은 기업의 현재 가치인 기업역량뿐 아니라 미래 가치인 고용 브랜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간디와 소년의 일화나 최근 현대·기아차 그룹 사태는 21세기형 CEO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정재현 사회 2부장 jhjung@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